

군산상일고 명문고 도약 적극 지원

군산상고, 일반계고 전환 따라 학교 명칭 변경

도교육청, 고교 입학전형 학부모 설명회 열어

군산상일고등학교가 '군산상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 내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로 운영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군산상일고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군산상일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업계열에서 인문계열로 학교유형 전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날 학교유형 전환 과정을 소개 및 교육과정, 예산·시설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 계획이다.

군산상일고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평준화고 일반고 8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2~3학년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상업계열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군산상일고가 인문계고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육과정, 예산·시설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문계열과 상업계열을 전담하는 교감을 각각 운영하고,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학교장 전입과 초빙 범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지원 교사 추가 배치, 진로 전담 상담교사 배치, 일반직 및 조리실무사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박정희 도의원, 이성기 교원인사과장, 군산교육장 등이 참석해 교육과정 및 우수 교원 확보 등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환경 개선, 학생 해외연수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산상일고등학교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길러내고,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상일고는 이날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신설하기 위한 학교구성원 즉,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번주 중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추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이 전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성 기자



지난 8일 오후 7시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군산상일고 학부모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 속 가상 전시의 장단점

전주대 황요한 교수 단독 집필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에 실려

전주대학교 황요한 교수(영문학과)가 단독 저자로 집필한 연구 논문이 'Computers & Education' 194권에 실렸다고 전했다. 이 저널은



황요한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나둘씩 쌓았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경험과 노하우, 추억들이 온종일 좋은 저녁에 실리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학과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황요한 교수는 최근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를 공동 집필했으며, '영어 비대면 말하기 인터뷰 평가의 개발: 인터뷰 평가에서의 AI 및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 모색'이라는 연구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전주대학교에서 링크 3.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융합메타버스 ICC 기업합업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정은성 기자

황요한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하나둘씩 쌓았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경험과 노하우, 추억들이 온종일 좋은 저녁에 실리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학과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황요한 교수는 최근 '영어교육 메타버스로 날개를 달다'를 공동 집필했으며, '영어 비대면 말하기 인터뷰 평가의 개발: 인터뷰 평가에서의 AI 및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 모색'이라는 연구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리 고병원성 AI 신속 진단키트

임상 유효성 평가 연구 성과 발표

전북대 김상원 대학원생, 수의학회 우수발표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상원 대학원생(수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2022 대한수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상원 대학원생은 "최근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질병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차후 신속 진단키트의 임상적 민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상원 대학원생은 '오리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속 진단키트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라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주로 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HPAI 신속 진단키트의 유효성을 오리에서 평가해 유의미한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보조적인 진단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오리는 닭에 비해 HPAI 감염이 임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전파율이 높아 조기진단 및 사전대응이 중요한데, 향후 신속 진단키트를 활용한 현장방역이 HPAI의 선제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빔 활용 기존 광촉매 문제점 개선

전북대 정준혁 학생, 우수 연구로 2개 학회 동시 수상

전북대학교 정준혁 학부생(양자시스템공학과 3년, 지도교수 유승화)이 최근 열린 2개 학회에서 초우수발표학술상과 우수논문발표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준혁 학생(왼쪽)과 지도교수인 유승화 교수(오른쪽).

정준혁 학생은 "전자빔 조사를 통한 이산화티타늄과 이산화탄소/탄소나노섬유 복합체의 광촉매적 활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유승화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성과를 발표해 이례적으로 학부생으로서 두 학회에서 동시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금속산화물 광촉매는 세 가지 단점, 즉 밴드갭이 크고, 전자-정공 재결합 속도가 빠르며, 광촉매 표면의 수분 흡착이 느리기 때문에 광분해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었다. 이를 극복해 광촉매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학적 도핑과 이온 주입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하지만 확산을 이용한 화학적 도핑은 광촉매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온주입 기술은 시트와 같은 두꺼운 형상의 광촉매를 내부까지 균일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광촉매 효

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산화티타늄/탄소나노섬유 복합체를 제조 전자-정공 재결합을 억제하고 표면 구조 및 밴드갭을 조절하기 위한 에너지 투과력이 높은 전자빔을 활용했다.

정준혁 학생은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을 준 유승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연구 참여가 두 학술대회에서 동시 수상으로 돌아와 감사스럽다"며 "현재 전자빔 조사된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이런 연구에서는 기존의 광촉매 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산화티타늄/탄소나노섬유 복합체를 제조 전자-정공 재결합을 억제하고 표면 구조 및 밴드갭을 조절하기 위한 에너지 투과력이 높은 전자빔을 활용했다.

정준혁 학생은 "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을 준 유승화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연구 참여가 두 학술대회에서 동시 수상으로 돌아와 감사스럽다"며 "현재 전자빔 조사된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중기 재직자 학사 편입생 모집

전주대학교 탄소융합공학과는 내년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학사 편입생 20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이 과정을 통해 탄소 관련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핵심 산업인 탄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자, 입사와 동시에 편입학 가능한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합격 후에는 3학년으로 편입해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공학사를 취득하게 된다.

수업은 주 3일, 화·수·목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직장인의 출석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수강과목도 개설된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공학 학사 석사 박사 모든 과정을 갖추고 있어 학사 졸업 후 연계 학습도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LINC 3.0 사업단

하이어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주)하이어가 스마트관광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9일 (주)하이어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석 LINC 3.0 사업단장과 강순화 스마트관광ICC 센터장, 운영관 총괄대표, 이병철 경영부사장, 김용덕 고객안전서비스부사장, 조근희 객실승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학 및 취업 연계 교육 진행 △산학공동 연구개발 및 애로기술 컨설팅 △공공장비 지원 등 기술 교류 △산학체 재직자 교육 지원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공동 진행 등이다.

이종석 단장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친화형 스마트관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하이어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운영관 총괄대표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취업연계형 워크숍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022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동계 워크숍 및 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융복합 라이프케어 방향'을 주제로 9일 완주군 상관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석홍 진천캠퍼스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생활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계 간 융복합을 통해 최상의 스마트 융복합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이날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의 연구개발 및 맞춤형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협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사례 공유

전북대, 성과공유회 열어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는 지난 8일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2022 전라제주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권역의 각 교육청 담당자를 비롯해 교육기부 제공자와 수혜자, 그리고 교육기부에 뜻있는 이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교육기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박병기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각 지역센터의 소개와 그간의 성과보고 및 드론이 허은호 대표, 부안초등학교 모델학교 이승화 담당교사와 (주)하림 윤리경영사무국 유영삼 사무국장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교육기부자인 박금숙 대표, 이명희 대표, 이항주 센터장 최상희 대표와 전라제주권역 송재홍, 유종원 공동연구원 그리고 기동환, 김성훈, 김관용, 유영삼, 최병연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지난 8일 진수당 김광수홀에서 2022 전라제주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등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한편,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올해 전라·제주권 초·중등 학교 8곳을 모델학교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특히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고창·부안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연극이 학생들에게 체험의 즐거

움을 선물했고, 전국 어린이연극잔치에도 참여해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도 올렸다.

박병기 센터장은 "많은 학교 교육기부자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저탄소 식행동 실천, 지구 온도 낮춰요”

도교육청, '특목영양 수업이야기 나눔회' 개최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 위한 수업콘텐츠 등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2022년 특목(talk-talk) 영양 수업이야기 나눔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양·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개의 연구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연구회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영양수업 자료집 개발, 즐겁게 영양을 가르치는 다양한 수업교구 개발, 초·중등 교과교육 과정과 연계한 영양수업지도안 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을 위한 다양한 수업콘텐츠와 사례를 발표하고, 영양수업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연구회에서 3년간 연구한 수업교구 및 수업안을 자료집으로 제작·배부해 영양·식생활교

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교과영양·저영양 식품의 섭취를 줄여요 △나의 몸! 나의 지구! 내가 지켜요 △저탄소 식행동 실천!로 지구 온도를 낮춰요 △청소년 진로·인성상담을 위한 푸드아트테라피 프로그램 △그림책 영양수업안 자료집 등에 대해 협의도 했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저탄소 환경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양·식생활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영양수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국립군산대-전주기전대

상호협력·지원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9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전주기전대(총장 조희천)와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교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2+2, 3+1 교육프로그램 등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혁신적 교수 및 학습법 공동연구,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연구, 기타 교육 및 연구지원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교는 이번 협약과 함께 지역 내 고등교육의 발전을 통한 지역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다. /군산=김광근 기자